

##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비교 연구

최 속 기(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 요약 》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국의 북경시 및 사천성에 위치한 4개 중학교에서 선정된 599명의 중학생들이며, 이들은 박영민(2008b)에서 개발한 중학생 읽기 동기 검사지에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의 읽기 동기를 분석하였고, 이를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수준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학생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발달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 차이에서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은 동일하게 여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남학생들에게 비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 차이에서 중국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하위 요인의 점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읽기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중학생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 중학생과 중국 중학생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 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한국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 학년별 차이에서도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읽기 동기 하위 요인 중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은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단, 예외적으로 중요성 요인에 있어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동기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 및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 차이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려 준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읽기 동기의 변화가 동일한 궤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읽기 동기의 차이는 사회·문화·교육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 동기는 읽기 활동을 이끌고 유지시키는 심리적인 동인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읽기 동기, 한국 중학생, 중국 중학생, 효과크기, 비교 연구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agrement@knue.ac.kr](mailto:agrement@knue.ac.kr)

## I. 서론

동기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근원적인 기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반 동기가 읽기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되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읽기 동기(reading motivation)이다. 읽기 동기는 독자가 읽기를 왜 선택하고 수행하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구인으로, 읽기 동기의 수준은 독자의 읽기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읽기 동기가 높은 독자는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으로써 읽기 능력의 총체적인 발달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에 반해, 읽기 동기가 낮은 독자는 읽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읽기 능력 발달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독자의 읽기 동기 수준과 양상을 탐색하는 하는 것은, 곧 독자가 지닌 읽기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읽기 동기의 수준과 양상에 대한 탐색이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준과 양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해석이란, 읽기 동기의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혹은 긍정적인 양상과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다. 읽기 동기와 관련한 해석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읽기 동기의 상대적인 수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읽기 동기의 수준과 양상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설명하고 이를 해석하여 교육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읽기 동기의 보편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적인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 사이의 쓰기 동기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읽기 동기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를 효과크기(ES: Effect Size)를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국 중학생을 상대적인 비교 집단으로 선정한 근거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읽기 동기에 관한 연구들이 북미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점, 둘째, 연구 대상의 분포가 초등학생들에 제한되었다는 점, 셋째, 읽기 동기의 측정도구나 이에 따른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논의가 북미의 읽기 교육 환경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연구들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수준과 양상을 탐색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상대적 차이를 밝혀 논의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동질적인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읽기에 대한 문화적 풍토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학 입시와 관련한 경쟁적인 교육 구조에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동일한 발달 단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양상과 수준에 대한 보편적 특성을 밝히고 상대적인 비교를 이끌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읽기 동기의 개념 및 특성

읽기 동기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왜 책을 읽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읽기 동기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로 동기라는 요인을 탐색한 여러 동기 이론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념이다. 그간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들 가운데 동기 이론들이 다루어져 왔는데, 읽기 동기는 이러한 동기 이론이 읽기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읽기 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1990년대에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으로 일반 동기 이론의 발전과 읽기 동기 검사 도구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읽기 동기 검사 도구의 개발은 일반 동기 이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 읽기 동기 검사 도구 자체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동기 이론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사 도구의 개발은 읽기 동기의 객관적인 측정을 보다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검사 도구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부터 읽기 동기에 관한 연구는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Heathington(1979)은 이미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읽기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읽기 동기와 시간제한 요인, 학생들의 선택에서의 자율성이 읽기 동기와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읽기 동기의 객관적인 측정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이후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Wigfield & Guthrie(1997)의 읽기 동기 검사 도구인 MRQ의 개발은 이후 읽기 동기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데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읽기 동기에 주목을 한 이유는, 잘 읽는 데에 주목해 온 기능 중심의 읽기 지도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읽기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읽기를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글을 잘 읽는 독자만이 아닌, 독립적 독자(independent reader)에 있다. 단지 읽기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읽기에 필요한 기능과 전략을 능숙하게 다루며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책 읽는 것을 즐기며 삶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읽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적 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읽기 교육적 차원에서 읽기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균형 있게 다루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읽기 교육에 대한 변화의 욕구는 곧 읽기 동기에 대한 관심과 접근으로 이어졌다. 읽기 동기는 독자가 스스로 책 읽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읽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 읽기 수행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읽기 동기는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교육적 현실을 반영하며 등장하였다.

읽기 동기는 동기의 일반적 성격이 읽기라는 특정 행위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란, 행동을 촉발시키고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또 행동을 위한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행위를 지속하거나 혹은 저항하도록 이끌며 특정 행동을 선호하거나 혹은 선택하도록 이끈 심리적 과정 혹은 요인으로 설명된다(Wlodkowski, 1984). 따라서 이러한 동기의 일반적 성격을 읽기라는 특정 행동에 대입하여 볼 때, 읽기 동기란 “읽기 행동이나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지속하게 하며, 심화·발달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원인(原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읽기 동기와 읽기 행동의 선택, 지속, 심화라는 측면과의 상관성이다. 읽기 동기는 읽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에 머물지 않고, 읽기 과정을 포함한 읽기 수행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읽기 교육에 읽기 동기를 적용하여 지도할 경우, 책을 잘 읽지 않으려는 독자들에게 읽기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읽는 과정 중 나타나는 읽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읽기 과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읽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동기는 영역 일반성(domain-general)과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ity)이라는 특성을 포함한다. 읽기 동기의 영역 일반성이란 일반 동기와 읽기 동기가 성격이나 요인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읽기 동기의 영역 특수성이란 일반 동기와 구분되는, 읽기 동기만의 고유한 성격이나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효능감은 동기의 일반 이론에서 다루는 주요 요인이지만, 이 요인이 읽기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읽기 효능감’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읽기 동기는 일반 동기 이론의 요인을 끌어오되, 읽기라는 특정 영역 내에서는 특수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다음으로 읽기 동기는 다면성을 지닌다. 읽기 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동기 요인들을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어떤 외적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 동기화되어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 의해 의사나 의지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동기 자체가 이러한 다양한 행동의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기 동기 역시 독자가 읽기를 행위하도록 하는 다양한 이유를 포함한다(Wigfield, 1997).

마지막으로 읽기 동기는 가변성을 포함한다. 읽기 동기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읽기 동기의 발달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읽기 동기가 높았던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고 과업 부담이 늘면서 읽기 동기는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서면 읽기 동기가 크게 떨어진다.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읽기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읽기 동기의 감소 현상은 뚜렷한 추세를 보인다. 초등학교 때에는 높았던 읽기 동기가 중학교 입학 시기에 감소한다는 것은 읽기 동기가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 2.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읽기 동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은 “왜 사람들은 읽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개별적인 목적이나, 상황 등을 통해 범주화하여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Wigfield(1997)는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 동기 검사 도구인 MRQ(The Motivation for Reading Questionnaire)에서 제시하는 읽기 동기의 구인들은 읽기 유능감(reading competence), 읽기 효능감(efficacy), 읽기 성취(reading achievement), 읽기 가치(value), 읽기 목적(goal), 사회적 행위로서의 읽기(reading as society activity), 읽기 과업 회피(reading work avoidance)들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들은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다. 각 읽기 동기 구성 요인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요인들은 다시 상위의 범주로 묶여 일반화될 수 있다. 이때 범주화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루어져 온 동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기반 한 것이다. 먼저 효능감 및 유능감 요인들은 일반 효능감 요인과 관련 깊다. 효능감이란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독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더 쉽게 읽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읽기 성취, 읽기 가치, 읽기 목적과 같은 요인들은 일반 성취 목표 이론과 관련이 깊다. 성취 목표 경향성에 있어 숙달에 목표를 둔 독자인 경우는 읽을 제재가 어렵거나 해결해야 할 읽기 과제가 복잡하더라도 읽기를 쉽게 선택한다. 그러나 숙달 목적이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보상을 위한 목적을 지닌 독자인 경우는 이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학습 목적(learning goal)과 수행 목적(performance goal) 간의 차이에 따라 독자들의 읽기 행동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독자 내적인 호기심이나 흥미 등의 이유로 행동을 선택하는 내적 동기나 보상, 칭찬, 점수 등의 이유로 행동을 선택하는 외적 동기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Wigfield & Guthrie(1995, 1997)의 초기 MRQ(The Motivation for Reading Questionnaire)에서 설정한 요인은 총 11개로, 읽기 효능감, 읽기 도전, 읽기 과업 회피, 읽기 호기심, 읽기 몰입,

읽기 중요성, 읽기 경쟁, 읽기 인정(Reading recognition), 읽기 성적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유능감 및 효능감 요인에 포함되는 개념은 읽기 효능감과 읽기 도전으로 이 요인들은 읽기가 종종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읽기 효능감은 성공적으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읽기 도전은 글에서 복잡한 개념들을 종합하고 이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적 동기와 학습 목표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읽기 호기심, 읽기 몰입을 포함한다. 읽기 호기심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특정 주제로 인해 글을 읽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며, 읽기 몰입은 정보 전달적 텍스트 혹은 문학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종류를 경험하는데서 느끼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읽기 몰입의 관점은 매우 흥미 있는 주제로 잘 쓴 글이나 책을 읽고 얻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읽기의 중요성은 Eccles & Wigfield(1992)의 주관적인 과제 가치(task value)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범주이다(Eccles et al.,1983; Wigfield & Eccles, 1992). 읽기의 중요성은 읽기가 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 동기에 포함되는 요인인 읽기 인정은 읽기에 대한 성공의 인정의 방식으로 유형의 형태로 부여받는 즐거움이며, 성적을 위한 읽기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읽기를 수행하는 것을 설명한다. 읽기 경쟁은 읽기에서 다른 사람을 뛰어 넘고 싶어 하는 욕구이고 이는 수행 목표와 관련을 맺는다. 다음으로 읽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읽기의 사회적 이유는 읽기로부터 얻은 의미 등을 가족이나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며, 읽기 순응은 읽기에 관한 외적 요구사항이나 외적 목표에 기인하여 독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요인인 읽기 과업 회피는 읽기 과제 수행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읽기 동기의 다른 요인들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일 연구에서 이들 요인들은 부분적으로 축소되거나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Watkins & Coffey(2004)는 다시 위 요인들을 상호작용, 성적 및 순응, 호기심 및 경쟁, 몰입, 회피, 읽기 효능감, 인정 등의 8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Wang & Guthrie(2004)는 읽기 동기의 기존 범주를 다시 읽기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이원화하면서 내적 동기에 호기심, 몰입, 도전 요인을 포함하고, 외적 동기에 인정, 성적, 사회적 이유, 경쟁, 순응 등의 8개 요인을 탐색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 3학년, 5학년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한 권민균(2002)에서는 읽기 효능감, 도전심, 호기심, 몰입, 중요성, 인정, 상호작용, 경쟁, 순응, 회피의 10개 요인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민(2006)의 연구에서 이들 요인은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 인정-중요성, 읽기 효능감, 흥미, 몰입 등의 5개 요인으로 축소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이유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동기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학교급 별로 읽기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 간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전국 2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4,673명의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탐색한 박영민(2008c)의 재검토 연구

에서는 보상 및 인정,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 읽기 효능감, 읽기 중요성, 읽기 행동에 관한 흥미, 읽기 주제에 관한 흥미 등 7개 흥미가 제시되었다. 여전히 읽기의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보상 및 인정과 같은 외적 동기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은 전체적으로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요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Wigfield & Guthrie, 1995, 1997; Watkins & Coffey, 2004; Wang & Guthrie, 2004), 중학생들은 내적 동기 요인보다 외적 동기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읽기가 동기화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읽기 동기 구성 요인 간의 학년별 비중 차이를 예측하여 볼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자료와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 중국 중학생들의 경우, 북경(北京)에 위치한 노하 실험중학교(潞河實驗中學校)와, 사천성(四川省)에 위치한 마답 중학교(馬踏中學校), 마답진 중학교(馬踏鎮中學校), 삼강중학교(三江中學校)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sup>1)</sup> 북경시와 사천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읽기 동기의 차이를 보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중학생들의 표집 분포 역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이 균등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읽기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도 대도시와 중소 도시 내 중학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더불어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학년별, 성별로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에 따라 인원을 일정하게 조정하였다.<sup>2)</sup> 연구에 참여한 중국 중학생들은 총 599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306명(51.08%), 여학생은 293명(48.91%)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중학생들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 중학생 자료는 박영민(2008a, 2008b)에서 연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20개 중학교<sup>3)</sup>로부터 4,673명의 학생으로 수집되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2,363명(50.57%), 여학생은 2,310명(49.43%)이었다. 비교 대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조사에 도움을 주신 원림(園林), 등옥매(鄧玉梅), 후덕휘(侯德輝), 방혜영(方惠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집한 중국 중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나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3) 박영민(2008)에 참여한 전국 20개 중학교는 영원중, 고대부중, 당동중, 정자중, 논곡중, 가오중, 내동중, 북대중, 용문중, 조치원여중, 조치원중, 북성중, 군산중, 분포중, 봉림중, 상주중, 상주여중, 청리중, 강북중, 함태중학교 등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규모 및 분포

국가	학년	성별		계	국가	학년	성별		계
		남	여				남	여	
한국 중학생	1	805	741	1546	중국 중학생	1	69	137	206
	2	768	818	1586		2	133	74	207
	3	790	751	1541		3	104	82	186
계		2363	2310	4673	계		306	293	599

## 2. 검사 도구

검사 도구는 박영민(2008b)에서 사용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동기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읽기 동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Wigfield & Guthrie(1995, 1997), Wigfield, Guthrie, & McGough(1996), Guthrie & Wigfield(2000), Watkins & Coffey(2004), Wang & Guthrie(2004), 권민균(2002, 2005), 박영민(2006)의 연구와 읽기 태도를 탐색한 Mathewson(1994), McKenna(1994), McKenna, Kear, & Ellsworth(1995)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된 것으로 선행 연구로부터 읽기의 사회성, 효능감 및 신념, 흥미, 몰입, 호기심, 인정, 회피, 도전심, 노력, 태도, 환경, 전략 및 상위인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읽기 동기 검사를 위한 문항을 구성한 것이다. 각 요인 별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조금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중학생들에게 적용된 검사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원생, 교사 등이 맡았으며, 번역 자료의 검토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완전히 구사하는, 북경 소재 대학의 조선족 교수가 맡았다.<sup>4)</sup> 반응 척도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투입하였다.

〈표 2〉 중학생 읽기 동기 검사 문항의 하위 요인

요인	문항	신뢰도
1. 인정 및 보상(8문항)	05. 09. 35. 36. 37. 38. 40. 47.	.833
2. 상호작용(6문항)	08. 14. 25. 26. 31.43.	.788
3. 몰입(9문항)	46. 51. 53. 54. 57. 58. 60. 63. 64.	.843
4. 효능감(5문항)	01. 10. 15. 42. 41.	.713
5. 중요성(5문항)	13. 20. 24. 29. 56.	.566
6. 읽기 흥미(4문항)	04. 07. 11 <sub>(R)</sub> . 12.	.873
7. 내용 흥미(3문항)	21. 22. 33.	.534

4) 검사 도구 번역 검토에 도움을 주신 북경 제2외국어 대학의 김영옥(金英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3. 연구 절차

중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동기 검사지를 구안하기 위하여 먼저 박영민(2008)에서 적용된 64개의 읽기 동기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번역 과정은 크게 1차 번역 작업과 2차 번역 작업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2008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 도구 번역을 마친 후, 6월 20일에서 30일까지 중국 북경시 및 사천성의 중학교 가운데 검사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검사지를 우송하였다. 검사지에는 응답 예시를 포함하여 설문 조사에 익숙하지 못한 중국 중학생들이 오류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사 안내 사항도 포함하여 학생들을 적절히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안내에는 성실한 응답 태도 유지,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요령, 학생 질문에 대한 조치 방법, 자료 회수 및 회송 방법 등을 포함하였다. 중국 교사들에게는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 전화로 질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전화 질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8월 초, 중국 중학생들이 반응한 검사지를 회수하여 자료 입력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검사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05로 나타났다. 박영민(2008a, 2008b)의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52였다.

### 4. 분석 도구

본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한글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의 차이를 위하여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에 관한 성별,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읽기 동기 전체 평균 및 하위 요인별 평균을 변인으로 삼아, t 검정과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박영민(2008a, 2008b)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수준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읽기 동기 전체 평균 및 하위 요인의 평균을 변인으로 삼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 간의 변인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차이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차이를 전체 수준과 요인별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박영민(2008b, 2008c)에서 분석된 읽기 동기의 전체 평균 및 하위 요인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학생들의 읽기 동기 점수와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을 각각의 독립 집단으로 삼고 t 검증을 통해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차이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3957	3.69	0.76	-13.47	0.00	0.46																																																																																
	중국	599	4.04	0.56				인정 및 보상	한국	3895	3.99	1.05	-14.10	0.00	0.46	중국	599	4.47	0.73	상호작용	한국	3959	2.54	0.88	-22.31	0.00	0.92	중국	599	3.35	0.82	몰입	한국	3957	3.67	1.00	-1.00	0.32	0.04	중국	599	3.71	0.82	읽기 효능감	한국	3960	3.81	0.86	-2.78	0.01	0.12	중국	599	3.91	0.8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인정 및 보상	한국	3895	3.99	1.05	-14.10	0.00	0.46																																																																																
	중국	599	4.47	0.73				상호작용	한국	3959	2.54	0.88	-22.31	0.00	0.92	중국	599	3.35	0.82	몰입	한국	3957	3.67	1.00	-1.00	0.32	0.04	중국	599	3.71	0.82	읽기 효능감	한국	3960	3.81	0.86	-2.78	0.01	0.12	중국	599	3.91	0.8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상호작용	한국	3959	2.54	0.88	-22.31	0.00	0.92																																																																																
	중국	599	3.35	0.82				몰입	한국	3957	3.67	1.00	-1.00	0.32	0.04	중국	599	3.71	0.82	읽기 효능감	한국	3960	3.81	0.86	-2.78	0.01	0.12	중국	599	3.91	0.8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몰입	한국	3957	3.67	1.00	-1.00	0.32	0.04																																																																																
	중국	599	3.71	0.82				읽기 효능감	한국	3960	3.81	0.86	-2.78	0.01	0.12	중국	599	3.91	0.8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읽기 효능감	한국	3960	3.81	0.86	-2.78	0.01	0.12																																																																																
	중국	599	3.91	0.8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중요성	한국	3960	3.83	1.00	2.38	0.02	-0.08																																																																																
	중국	599	3.75	0.70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읽기 흥미	한국	3959	3.82	1.12	-16.34	0.00	0.65																																																																																
	중국	599	4.55	1.01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내용 흥미	한국	3960	4.14	1.02	-8.62	0.00	0.35																																																																																
	중국	599	4.50	0.93																																																																																			

먼저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읽기 효능감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t 검증은 각각의 자료 분포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3>에 따르면, 읽기 동기 전체 점수와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모두 중국 중학생들이 한국 중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중국 중학생이 한국 중학생에 비해 읽기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동료나 교사 등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이유로 읽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중국 중학생은 한국 중학생에 비하여 읽기 자체에 대한 내적 흥미를 이유로 읽기에 좀 더 참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읽기의 사회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대개 이 요인과 관련한 읽기 동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읽기의 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학생들이 주변 구성원들과 유의한 공유 경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중학생보다 중국 중학생들에서 이들 수준에 유의하게 높은 것은 읽기 활동과 관련지어 중국 중학생들이 읽기 중과 후에 이와 같은 경험에 더 빈번히 노출되거나 혹은 의미 있는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읽기 흥미는 읽기의 내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한국 중학생보다 중국 중학생들이 읽기란 매우 흥미로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요인 가운데 읽기 흥미 요인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중국 중학생들이 읽기에 관하여 더욱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요성 요인에 관한 읽기 동기 수준은 중국보다 한국 중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한국 중학생이 읽기가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인식과 읽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평균 점수 간 차이를 비교한 뒤, 효과 크기를 검증하여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읽기 동기의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수준이 한국 중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효과크기 분석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의 효과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상호작용에 관한 효과크기는 가장 0.92로 가장 큰 수치를 보여 준다. 이들 차이를 비교하면, 중국 중학생들의 상호작용 요인의 평균은 한국 중학생들의 상호작용 요인의 점수 분포의 상위 17.62%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균 차이를 고려하여 볼 때, 중국 중학생들이 읽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읽기 동기화의 일반적인 수준이 한국 중학생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읽기 흥미 요인의 효과크기는 0.65로 이는 한국 중학생들의 점수 분포에서 중국 중학생들은 이 요인 평균은 상위 25.78%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중국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는 중요성 요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두 점수 간의 실제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의 경우, 한국 중학생은 실제로 다른 읽기 동기 하위 요인들과의 차이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실제로 한국 중학생들이 일반적인 읽기 상황이나 교육 장면에서 읽기의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중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읽기를 통해 구성한

의미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유의미한 경험보다는, 개인적인 읽기 활동 혹은 동료와의 경쟁적인 읽기 활동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제적인 양상을 읽기와 관련한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한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읽기 흥미와 관련한 요인의 경우,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평균 수준은 각 집단 내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읽기 자체가 흥미 있고 즐거운 활동이라고 여기고 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읽기의 내적 동기의 수준은 중국 중학생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흥미가 이처럼 높은 이유와 관련하여 중국 중학생을 둘러싼 읽기 환경이나 주로 접하는 읽기 제재, 읽기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탐색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학생들과 한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쓰기 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박영민·최숙기(2009)에서도 중국 중학생들의 동기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수준도 한국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읽기 동기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측해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이후 읽기에 몰입하는 정도, 선택의 여부, 읽기 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들 간의 차이는 곧 후속적인 읽기 수행의 질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차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읽기는 문식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국제 비교 목적의 성취도 평가 등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읽기는 학업적 성취를 예측한다. 또한 읽기는 이후 사회 속에서 생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적 자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감소를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읽기 동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 교육적 접근과 읽기 교육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보다 더 요구된다.

## 2. 한국과 중국 중학생 읽기 동기의 성별 비교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 차이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성별 집단 간의 읽기 동기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을 독립집단으로 삼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를 적용하였다.

〈표 4〉 한국과 중국 남자 중학생의 읽기 동기 비교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2034	3.68	0.75	-7.95	0.00	0.39
	중국	306	3.97	0.57			
인정 및 보상	한국	2003	4.00	1.04	-8.18	0.00	0.39
	중국	306	4.41	0.77			
상호작용	한국	2037	2.54	0.88	-13.83	0.00	0.84
	중국	306	3.28	0.84			
몰입	한국	2035	3.65	1.00	-0.03	0.98	0.01
	중국	306	3.66	0.81			
읽기 효능감	한국	2037	3.81	0.85	-1.55	0.12	0.09
	중국	306	3.89	0.86			
중요성	한국	2037	3.84	0.98	1.79	0.07	-0.08
	중국	306	3.76	0.72			
읽기 흥미	한국	2036	3.80	1.13	-10.05	0.00	0.55
	중국	306	4.42	0.99			
내용 흥미	한국	2037	4.13	1.03	-4.69	0.00	0.26
	중국	306	4.40	0.93			

먼저, 남학생들 간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과 효능감 요인에서만 유의확률이 .05보다 높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이외의 다른 하위 요인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남자 중학생과 중국 남자 중학생의 읽기 동기를 분석한 결과, 몰입과 읽기 효능감, 그리고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와 그 외 읽기 동기 하위 요인에서 중국의 중학생이 한국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다. 이 중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성 요인은 한국 남자 중학생들의 수준이 중국 남자 중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읽기 효능감과 몰입 요인에서 중국 남학생들의 점수는 더 높았지만,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 중국 남학생들 모두 스스로 잘 읽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읽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몰입의 경험을 통해 동기화되는 수준도 모두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각각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읽기 동기 전체 평균에 대한 차이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의 효과크기는 0.84이

고 읽기 흥미 요인의 효과 크기는 0.83으로 나타나 매우 큰 수준의 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의 남자 중학생들의 상호작용 평균이 한국 남자 중학생들의 상호작용 요인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20.05%에 위치하고, 읽기 흥미 요인의 경우는 상위 29.12%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중학생들이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는 읽기 중요성의 효과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남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전체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한국과 중국 여자 중학생의 읽기 동기 비교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1854	3.69	0.76	-11.22	0.00	0.54																																																																																
	중국	293	4.10	0.54				인정 및 보상	한국	1823	3.98	1.06	-12.03	0.00	0.53	중국	293	4.54	0.67	상호작용	한국	1853	2.54	0.87	-16.19	0.00	1.01	중국	293	3.42	0.79	몰입	한국	1853	3.69	1.00	-1.30	0.20	0.07	중국	293	3.76	0.83	읽기 효능감	한국	1854	3.80	0.87	-2.45	0.01	0.16	중국	293	3.94	0.79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인정 및 보상	한국	1823	3.98	1.06	-12.03	0.00	0.53																																																																																
	중국	293	4.54	0.67				상호작용	한국	1853	2.54	0.87	-16.19	0.00	1.01	중국	293	3.42	0.79	몰입	한국	1853	3.69	1.00	-1.30	0.20	0.07	중국	293	3.76	0.83	읽기 효능감	한국	1854	3.80	0.87	-2.45	0.01	0.16	중국	293	3.94	0.79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상호작용	한국	1853	2.54	0.87	-16.19	0.00	1.01																																																																																
	중국	293	3.42	0.79				몰입	한국	1853	3.69	1.00	-1.30	0.20	0.07	중국	293	3.76	0.83	읽기 효능감	한국	1854	3.80	0.87	-2.45	0.01	0.16	중국	293	3.94	0.79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몰입	한국	1853	3.69	1.00	-1.30	0.20	0.07																																																																																
	중국	293	3.76	0.83				읽기 효능감	한국	1854	3.80	0.87	-2.45	0.01	0.16	중국	293	3.94	0.79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읽기 효능감	한국	1854	3.80	0.87	-2.45	0.01	0.16																																																																																
	중국	293	3.94	0.79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중요성	한국	1854	3.82	1.02	1.62	0.11	-0.07																																																																																
	중국	293	3.75	0.69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읽기 흥미	한국	1854	3.84	1.12	-13.11	0.00	0.83																																																																																
	중국	293	4.69	1.01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내용 흥미	한국	1854	4.16	1.01	-7.11	0.00	0.44																																																																																
	중국	293	4.61	0.92																																																																																			

〈표 5〉는 읽기 동기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여학생 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 효능감, 내용 흥미 요인에서 유의확률 .05 이상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적용된 t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읽기 몰입과 중요성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모든 읽기 동기 하위 요인들에서 중국 여자 중학생들이 한국 여자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차이는 모두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학생의 경우에서도 중국의 중학생들이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더욱 높은 읽기 동기 수준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

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요성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 여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과 비교할 때, 몰입은 공통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읽기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정도였다. 한국과 중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중요성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학생들은 모두 읽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읽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이들 간 차이가 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효과크기를 통한 분석에서 여학생의 읽기 동기에 대한 효과크기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 중학생을 집단으로 한 차이나 한국과 중국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학생들의 상호작용은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였는데, 중국 여학생들의 평균은 한국 여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5.62%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여자 중학생들이 상호작용으로 인한 읽기 동기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읽기 흥미의 효과크기도 0.8이상으로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여, 한국 여학생들의 점수 분포에서 중국 여학생들의 읽기 흥미 평균 점수는 상위 20.33%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간의 차이가 실제적인 평균 비교에서도 매우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읽기 동기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비교에 있어 중국의 읽기 동기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은 성별을 통한 비교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읽기 동기 차이에서 성별 차이를 통해 살펴본 결과, 두 국가 간의 전체적인 차이가 어느 한 쪽 성별에 의해 주도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중국의 중학생들이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읽기 동기의 성별 차이에서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의 차이가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읽기 동기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읽기 동기의 수준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여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집단 간에 읽기 동기 차이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성 요인에 대한 동기 수준은 한국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효과크기를 통한 평균 비교를 통해 두 차이가 아주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성별 집단 모두에서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에 관한 동기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중학생들과의 전체적인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욱 높은 읽기 동기 수준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각 성별 집단 간의 비교에 앞서, 이러한 성

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국가의 중학생들에게서 동일하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동기의 수준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읽기 동기의 성별 차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남학생의 읽기 동기가 낮다는 사실은 곧 읽기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남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도 여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읽기 동기의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 3. 한국과 중국 중학생 읽기 동기의 학년별 비교

읽기 동기는 성별 차이 외에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바탕으로 한 학년별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교육과 읽기 활동이 축적되면서 읽기 동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읽기 동기와 같은 읽기의 정의적 요인들의 발달 양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ccles et al., 1993; Stipek, 전선영, 최병연 역, 1998; Meckenna, Kear, & Ellsworth, 1995).

그러나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살펴보면(박영민, 2008b, 2008c), 읽기 동기의 전체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읽기 동기 하위 요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박영민(2006)에서는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요인 중 인정-중요성 요인에서만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 박영민(2008b)에서는 읽기 효능감과 읽기 중요성 요인에서만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다시 읽기 동기의 수준이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동기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학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발달하는지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표 6>에 따르면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는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추세는 읽기 동기 전체 평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중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동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읽기 동기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중학생의 경우 읽기 동기의 하위 요인들이 학년별 감소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읽기 효능감과 읽기의 내용 흥미 요인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읽기 동기 감소 현상과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영민(2008)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국 중학생의 읽기 효능감 역시 점차 감소하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비교하여 볼 때, 중국과 한국의 중학

생들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읽기의 내용에 관한 흥미 요인에 관한 감소는 중국 중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감소 양상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중학생은 읽기 내용에 대한 흥미가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중국 학생들의 내용 흥미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 흥미의 반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면, 읽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 중학생의 3학년 시기에 접하는 읽기 제재의 주제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 시기 중국 중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읽기 제재에 대한 폭넓은 탐색을 통해 읽기 흥미 요인이 점차 향상되는 이유를 추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중국 중학생 읽기 동기의 학년별 기술통계

변인	학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변인	학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읽기 동기 전체	1	206	4.07	0.51	읽기 효능감	1	206	3.97	0.76
	2	207	4.02	0.61		2	207	3.82	0.83
	3	186	4.02	0.56		3	186	3.95	0.88
	합계	599	4.04	0.56		합계	599	3.91	0.83
인정 및 보상	1	206	4.59	0.69	읽기 중요성	1	206	3.69	0.68
	2	207	4.39	0.77		2	207	3.81	0.72
	3	186	4.43	0.71		3	186	3.75	0.71
	합계	599	4.47	0.73		합계	599	3.75	0.70
상호 작용	1	206	3.27	0.74	읽기 흥미	1	206	4.73	0.90
	2	207	3.44	0.89		2	207	4.43	0.99
	3	186	3.33	0.80		3	186	4.49	1.10
	합계	599	3.35	0.82		합계	599	4.55	1.01
몰입	1	206	3.74	0.69	내용 흥미	1	206	4.49	0.88
	2	207	3.78	0.93		2	207	4.45	1.00
	3	186	3.59	0.81		3	186	4.57	0.91
	합계	599	3.71	0.82		합계	599	4.50	0.93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는 1학년 때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NOVA를 적용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중국 중학생 읽기 동기의 학년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인	체곱합	평균체곱	자유도	F	p	
읽기 동기 전체	집단-간	0.40	2	0.20	0.63	0.53
	집단-내	188.19	596	0.32		
	합계	188.58	598			
인정 및 보상	집단-간	4.59	2	2.29	4.39	.013
	집단-내	311.57	596	0.52		
	합계	316.15	598			
상호작용	집단-간	2.99	2	1.50	2.26	.105
	집단-내	395.02	596	0.66		
	합계	398.01	598			
몰입	집단-간	3.90	2	1.95	2.91	.055
	집단-내	399.05	596	0.67		
	합계	402.95	598			
읽기 효능감	집단-간	2.86	2	1.43	2.11	.122
	집단-내	404.83	596	0.68		
	합계	407.70	598			
중요성	집단-간	1.40	2	0.70	1.42	.243
	집단-내	294.83	596	0.50		
	합계	296.24	598			
읽기 흥미	집단-간	10.60	2	5.30	5.31	.005
	집단-내	594.92	596	1.00		
	합계	605.52	598			
내용 흥미	집단-간	1.37	2	0.69	0.79	.453
	집단-내	516.82	596	0.87		
	합계	518.19	598			

〈표 7〉에 의하면 읽기 동기 전체 점수가 학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동기의 하위 요인의 경우, 인정 및 보상과 읽기 흥미 요인만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므로 각 요인에서 발견되는 학년별 차이는 학년 증가에 따라 읽기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 7〉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Tukey HSD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중국 중학생 읽기 동기의 학년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변인	학년 (I)	학년 (J)	평균차 (I-J)	p
인정 및 보상	1	2	.20(*)	0.02
		3	0.16	0.07
	2	3	-0.04	0.88
읽기 흥미	1	2	.31(*)	0.01
		3	.24(*)	0.05
	2	3	-0.07	0.79

〈표 8〉의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을수록 읽기 동기 전체 점수가 감소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학년별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 및 보상 요인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사나 동료 등의 외적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혹은 읽기에 대한 점수, 외적 보상에 의해 읽기에 대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과 관련하여 1학년과 2학년 사이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 흥미 요인에서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간에 나타나는 읽기 흥미의 감소 현상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배제하더라도 전체 학년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기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 중학생들도 한국의 중학생들과 유사한 읽기 동기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 인정 및 보상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 학년별 차이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 중학생들의 발달 양상이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에서는 중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학년별 비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년별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학년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1, 2, 3학년을 각각 구분하여 독립된 집단으로 삼고, 각 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하위 요인 평균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도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차이는 〈표 9〉의 결과와 같다.

〈표 9〉 한국과 중국 중학교 1학년의 읽기 동기 비교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1314	3.67	0.77	-9.69	.000	0.52
	중국	206	4.07	0.51			
인정 및 보상	한국	1294	3.94	1.03	-11.60	.000	0.63
	중국	206	4.59	0.69			
상호작용	한국	1314	2.52	0.88	-13.24	.000	0.85
	중국	206	3.27	0.74			
몰입	한국	1314	3.66	1.02	-1.51	.132	0.08
	중국	206	3.74	0.69			
읽기 효능감	한국	1314	3.80	0.88	-2.63	.009	0.19
	중국	206	3.97	0.76			
중요성	한국	1314	3.79	1.01	1.77	.078	-0.1
	중국	206	3.69	0.68			
읽기 흥미	한국	1314	3.84	1.15	-12.73	.000	0.77
	중국	206	4.73	0.90			
내용 흥미	한국	1314	4.14	1.05	-5.15	.000	0.33
	중국	206	4.49	0.88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르면, 몰입, 중요성, 내용 흥미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t 검증은 이러한 등분산 가정을 기초로 수행되었다.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읽기 동기 전체 평균에서도 중국 1학년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몰입과 중요성을 제외한 모든 읽기 동기 하위 요인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요성 요인은 한국의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성 요인에 대한 한국과 중국 1학년 학생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통해서 중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전체 비교에서도 실제로 0.5 이상의 값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에 관한 효과크기가 한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중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상위 19.77%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1학년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실제적 차이도 매우 큰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읽기 흥미 역시도 중국의 1학년 학생들이 상위 22.06%의 수준에 위치하여

이들 간 평균 차이 역시 더 뚜렷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0>은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분석의 방식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10> 한국과 중국 중학교 2학년의 읽기 동기 비교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1322	3.68	0.74	-7.08	0.00	0.46
	중국	207	4.02	0.61			
인정 및 보상	한국	1301	3.96	1.06	-7.09	0.00	0.41
	중국	207	4.39	0.77			
상호작용	한국	1323	2.56	0.86	-13.55	0.00	1.02
	중국	207	3.44	0.89			
몰입	한국	1321	3.67	0.98	-1.52	0.13	0.11
	중국	207	3.78	0.93			
읽기 효능감	한국	1324	3.81	0.83	-0.17	0.87	0.01
	중국	207	3.82	0.83			
중요성	한국	1324	3.84	0.97	0.55	0.58	-0.03
	중국	207	3.81	0.72			
읽기 흥미	한국	1324	3.81	1.11	-8.21	0.00	0.56
	중국	207	4.43	0.99			
내용 흥미	한국	1324	4.13	1.00	-4.34	0.00	0.32
	중국	207	4.45	1.00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 따르면, 읽기 동기 전체 및 인정 및 보상, 중요성, 읽기 효능감 요인 이외 하위 요인들 모두 유의확률 .05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과 마찬가지로 몰입, 읽기 효능감,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 평균 및 읽기 동기 하위 요인에서 모두 중국의 2학년 중학생들이 한국의 2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다. 이 차이는 읽기 효능감 요인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와 그 외 하위 요인들 모두에서 모두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요성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크기를 통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 차이를 살펴보면, 이들 간의 차이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의 비교에서 역시 상호작용

과 읽기 흥미에 대한 효과크기는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나 중국의 학생들이 이 요인들에 대한 동기 수준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동기 수준 간 차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읽기 흥미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큰 효과크기를 보이거나 1학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간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원인이 한국 학생들이 읽기 흥미가 발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2학년 학생들에서 모두 읽기 흥미에 대한 감소가 나타났고, 특히 중국 학생들의 읽기 흥미에 대한 수준 감소가 더 뚜렷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차이 감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읽기 동기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지적되었는데, 읽기 동기가 가장 낮은 중학교 3학년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과 중국 중학교 3학년의 읽기 동기 비교

변인	국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t	p	ES
읽기 동기 전체	한국	1315	3.71	0.75	-6.76	0.00	0.41
	중국	186	4.02	0.56			
인정 및 보상	한국	1294	4.07	1.05	-6.03	0.00	0.34
	중국	186	4.43	0.71			
상호작용	한국	1316	2.55	0.88	-11.48	0.00	0.89
	중국	186	3.33	0.80			
몰입	한국	1316	3.68	1.00	1.41	0.16	-0.09
	중국	186	3.59	0.81			
읽기 효능감	한국	1316	3.82	0.87	-2.01	0.05	0.15
	중국	186	3.95	0.88			
중요성	한국	1316	3.86	1.01	1.78	0.08	-0.11
	중국	186	3.75	0.71			
읽기 흥미	한국	1315	3.81	1.11	-7.78	0.00	0.61
	중국	186	4.49	1.10			
내용 흥미	한국	1316	4.17	1.01	-5.16	0.00	0.40
	중국	186	4.57	0.91			

Levene의 등분산 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읽기 동기 전체, 인정 및 보상, 몰입, 읽기 중요성을 제외한 나머지 읽기 동기 하위 요인들에서 모두 유의확률 .05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중학교 3학년의 비교에서도 몰입 요인과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와 그 외 하위 요인들에서 중국 중학생들이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읽기 동기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요성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크기 분석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 전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과 한국 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에 대한 차이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요인에서 중국 중학생들의 평균이 한국 중학생들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18.67%에 위치함으로써, 뚜렷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읽기 흥미에 있어 중국 중학생들의 평균은 한국 학생들의 점수 분포의 상위 27.09%에 위치하여 이들 간 차이가 다른 요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에서 학년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학년에서 모두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읽기 동기와 각 요인별 평균 점수나 효과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학년이 점차 올라갈수록 한국과 중국의 동기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중학생 간의 읽기 동기 차이가 감소하는 이유는 한국 중학생들의 낮은 동기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해서가 아니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학년에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감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들의 감소폭에 비해 중국 중학생의 감소폭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동기 차이는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더욱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읽기 동기 요인에서 읽기가 매우 중요한 활동이고 읽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로 인해 읽기를 선택하는 읽기 중요성 요인에 대한 수준은 한국 중학생이 더 높다는 사실 역시 중학교 각 학년 간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요인에 대한 효과크기를 통한 비교에서 차이가 아주 적은 정도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 읽기 동기의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에서 각 학년별로 이들 간의 차이는 동일하게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이면서 중국 중학생들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의 상호작용 요인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읽은 내용에 대해 동료나 교사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긍정적인 경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싶도록 동기화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중국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동기에 대한 차이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읽는 중이나 읽은 후 활동으로 동료 간 토의나 협의, 토론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읽고 나서 느낀 점, 이해한 점에 대한 논의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동기화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상호작용 요인과 관련한 읽기 동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경험이나 느낌, 이해를 동료 및 교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 공유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받았을 때 읽기와 관련한 동기화로 연결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읽기 흥미 요인에 대한 학년별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학생들은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효과크기 비교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읽기 흥미는 학생들이 읽기 행위 자체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는 감정과도 관련 깊다. 책을 읽고 나서 매우 즐거웠던 경험이나 읽는 동안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과 관련지어 읽기에 대해 흥미를 느꼈던 것을 통해 동기화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중학생들은 한국 중학생들에 비해 읽기에 대한 흥미와 관련한 동기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 중국 학생들에게서 매우 높은 정도의 읽기 흥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읽기 교육의 전반적 효과인지 혹은 이들을 둘러싼 가정이나 사회적 문식성 환경과 관련된 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중국 중학생들에서 발견되는 매우 높은 동기화 수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반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읽기 교육의 방향이나 방법, 읽기 환경이나 맥락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중학생과 중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읽기 동기의 경향 및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읽기 동기와 관련한 이와 같은 비교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읽기 동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학생들에서 나타나는 읽기 동기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유의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 중국의 북경시와 사천성에서 4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읽기 동기 반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고 그 수준과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는 한국 중학생들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 차이 분석에서 한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하게 중국 여자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읽기 흥미와 내용 흥미 요인에 관한 동기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 차이에서 중국 중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하위 요인의 점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던 것이다. 한국 중학생들도 학년이 높을수록 읽기 동기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동일하게 보였다.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읽기 동기의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읽기 동기에 관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중학생들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읽기 동기 전체 평균과 읽기 동기의 하위 요인별 평균으로 직접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읽기 동기의 상대적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중학생들은 한국 중학생들보다 읽기 동기 전체 수준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하위 요인에서도 읽기의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하위 요인별 점수 모두가 한국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남학생 집단 간의 비교와 여학생 집단 간의 비교에서 모두 중국 학생들이 모두 더 높은 읽기 동기 수준을 보였고, 각 학년별 집단에서도 모두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점수가 높았다. 모든 요인에서 중국 학생들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던 요인은 상호작용과 읽기 흥미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읽기 흥미는 한국과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읽기의 중요성 요인은 다른 읽기 동기 요인과는 달리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즉, 이 요인에 대해서만 한국의 중학생이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읽기 중요성 요인은 읽기 행위가 지닌 사회 문화적,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기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독자가 읽기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를 통해 한국 중학생들은 중국의 중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읽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높고, 이 요인에 의한 읽기 동기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차이에 대하여 효과크기를 적용하였을 때, 실제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낮은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읽기 동기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동기 간의 성별 차이 분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년별 차이에 따른

분석에서 읽기의 정서적 요인으로서 읽기 동기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학년별 차이는 발생하지만, 학년별 읽기 동기 감소 현상은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읽기 동기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중학생들 간의 읽기 동기 비교에서 중국 중학생들과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성 요인을 제외한 읽기 동기 전체 수준과 하위 요인별 비교에서 모두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더 낮았다.

중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 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된 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과 읽기 흥미 요인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중학생들은 읽고 난 경험의 공유로서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동기화되어 있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 학생들은 읽기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읽기를 선택하는데 실제적인 기여를 제공하는 읽기 몰입이나, 읽기 흥미, 내용 흥미, 효능감, 몰입과 같은 내적인 동기 요인에서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동기 요인에 있어 중요성은 내적 동기 요인에 속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는 기반에는 부모나 교사의 강조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보다 더 깊게 작용한다. 즉, 한국 학생들은 읽기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자극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읽기 동기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내적 동기 요인들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스스로 읽기가 재미있고 읽기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나 읽을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 읽는 중에 느낄 수 있는 몰입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된 동기 수준도 중국에 비해 낮은 뿐 아니라 감소 경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폭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중학생의 읽기 동기의 수준과 그 양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읽기 동기 수준에서도 중국 중학생과의 상대적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중학생들과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중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긍정적 발달과 수준 향상을 위한 읽기 교육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과 중국 학생들 간에 나타난 읽기 동기의 차이는 읽기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이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접하는 읽기 제재의 주제나 유형, 영역 범주나 읽기 수행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 가정이나 학교 읽기 환경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탐색하여야 한다. 또한 읽기와 관련한 교육적 적용에 있어 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 요인들을 찾아 이를 수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 밖에 학생들의 읽기 동기의 향상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 내용 요소 선정, 교수 학습 방법 마련 등에 대한 교육적 방안 탐색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학지사.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21, 95-123.
- 권민균(2002). 초등학교의 읽기 동기에 관한 연구: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학년과 성차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3), 13-33.
- 권민균(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과 읽기 능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 박영민(2006). 중학생 읽기 동기 구성 요인 연구. *독서연구*, 16, 297-334.
- 박영민(2007). 중학생 읽기 동기와 쓰기 동기의 상관 분석. *작문연구*, 5, 9-41.
- 박영민(2008a). 중학생의 읽기 동기 및 쓰기 동기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문교육*, 17, 85-110.
- 박영민(2008b). 중학생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 분석과 읽기 동기 신장 프로그램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박영민(2008c). 중학생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 분석과 읽기 동기 신장 프로그램 개발. *청람어문교육*, 38, 141-184.
- 박영민, 최숙기(2008). 읽기 동기 신장을 위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방안. *독서연구*, 19, 201-228.
- 이순영(2006).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6, 403-125.
- 최숙기(2008). 인문계 고등학교의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273-308.
- 최숙기(2009). 중학생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5, 507-544.
- Carr, M., Borkowski, J. G. & Maxwell. S. (1991). Motivational components of und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08-118.
- Chapman, J. W. & Tunmer, W. E. (1995).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reading self-concepts: an examination of emerging sub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 154-167.
- Dwyer, E. J., & Reed, V. (1989). Effects of sustained silent reading on attitudes toward reading. *Reading Horizons*, 29, 283-293.
- Eccles, J., Midgley, C., Wigfield, A., Reuman, D., MacIver, D., Feldlaufer, H. (1991). Are Junior High Schools Undermining the Academic Motivation of Early Adolescents?. *Elementary School Journal*, 1-48.
- Ehrlich, M. F., Kurtz-Costes, B. & Loridant, C. (1993). Cognitive and motivational determinants

- of reading comprehension in good and poor readers.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5, 365-381.
- Gambrell, L., Palmer, B. M., Codling, R.M. & Mazzoni, S.A. (1996).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49, 518-533.
- Katims, D. S., & Harris, S. (1997). Improving the reading comprehen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inclusive classrooms. *Journal of Adolescent and Adult Literacy*, 41, 116-123.
- Kush, J. C., & Watkins, M. W. (1996). Long-term stability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315-319.
- Kurtz-Costes, B. E. & Schneider. W. (1994). Self-concept, attributional beliefs, and school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9, 199-216.
- Linnenbrink, E. A. & Pintrich, P. R.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19, 119-137
- Tunnel, M. O., Calder, J. E., & Phaup, E. S. (1991). Attitudes of young readers. *Reading Improvement*, 28, 237-243.
- Lazarus, B. D., & Callahan, T. (2000). Attitudes toward reading express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agnosed with learning disabilities. *Reading Psychology*, 21, 271-282.
- McKenna, M. C., & Kear, D. J. (1990).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43, 626-639.
- Wigfield, A., Guthrie, J. T., & McGough, K. (1996). A questionnaire measure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Instructional Resource #22). Athens, GA: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 Wigfield, A. (1997).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and reading engagement. In J. T. Guthrie & A. Wigfield (Eds.). *Reading engagement: Motivating readers through integrated instruction*.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Wlodkowski, R. J. (1984). *Motivation and teaching: A practical guide*. Washington, D. 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논문 접수 : 2009년 12월 30일 / 수정본 접수 : 2010년 2월 10일 / 게재 승인 : 2010년 2월 22일

[부록]

요인별 검사 문항

요 인	문 항
1. 인정 및 보상 (8문항)	35. 나는 책 읽기로 칭찬이나 상을 받아보고 싶다. 38. 책을 잘 읽는 학생 명단에 내 이름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05. 선생님께서 내가 읽기를 잘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기분이 좋다. 40. 나는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09. 나는 책 읽기를 잘 하고 싶다. 37. 책 읽기를 친구들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 나는 더 노력할 것이다. 47. 책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 알아주면 기쁘다. 36. 다른 사람에게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이 읽고 싶어진다.
2. 상호작용 (6문항)	31. 나는 책을 읽고 나면 주요 내용이나 감상을 정리(또는 메모)한다. 43. 나는 새로운 책에 대한 정보를 자주 검색해 본다. 08. 나는 가족과 함께 자주 도서관에 간다. 25. 내가 책을 잘 읽는다고 다른 사람들(예, 친구, 선생님 등)이 자주 말한다. 14. 나는 토의 시간에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26. 나는 친구들과 책을 서로 바꿔 읽는 것을 좋아한다.
3. 몰입 (9문항)	54. 나는 책을 읽을 때 내용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다. 53. 나는 독서가 여가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8. 나는 새로운 것(또는 낯선 것)에 관한 책 읽기를 좋아한다. 63. 누군가 책을 선물해 주면 기분이 좋다. 57. 나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닮고 싶다. 60. 나는 어른이 되어서 독서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51. 나는 여행할 때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간다. 64. 나는 도서관이 여가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46. 나는 취미 활동과 관계있는 책을 찾아서 읽는다.
4. 효능감 (5문항)	15. 나는 내가 읽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01. 나는 읽기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2. 책(글)의 글씨가 작아도 잘 읽는다. 41. 내가 사용하는 읽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중요성 (5문항)	13. 나는 읽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4.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6. 나는 책 읽기가 학교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9. 읽기는 다른 활동(예, 쓰기, 게임, 취미 등)보다 더 중요하다. 20.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재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읽기 흥미(4문항)	07.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책 읽는 것이 좋다. 04. 나는 책 읽기가 재미있다. 11. R 나는 책을 읽어야 할 때에만 읽는다.
7. 내용 흥미 (3문항)	21. 나는 내용이 어려워도 재미가 있으면 상관하지 않고 읽는다. 33. 나는 내용이 재미있으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기도 한다. 22. 나는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Reading Motivation betwee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nd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Sook-Ki Choi(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comparative analysis of reading motiv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4 middle schools in China were selected and 599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search. Korean students selected by Young-Min Park(2006) were compared with the Chinese students. They responded reading motivation scale developed by Young-Min Park(2006).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chinese students' reading motivation were similar to the Korean students' reading motivation. In gender difference, Chinese students reading motivation orientation are very similar to Korean students'. females showed higher reading motivation level than that of males and the higher grade level, the decrease reading motivation level in Chinese students.

Second, first grade students gain more scores than grade 2 and grade 3. It means that the first grad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reading motivation than others grades. Therefore, as secondary student reader move up, reading motivation goes down again replicating results with Korean students.

Third, when the reading motivation difference between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was analyzed by effect size, it was founded that chinese students showed higher reading motivation level than Korean students. This orientation were founded in all factors of reading motivation except for reading importance. In gender difference and grade difference, it was founded that the Chinese students showed higher reading motivation than Korean students'. Especially, social interaction and reading interest were factors showing the largest difference by effect size analyzation.

Key words : reading motivati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 effect size, comparative study